

남원의료원, 감염관리 교육·컨설팅 연간 지속 추진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이 2025년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4월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남원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감염관리 간호사가 참여해 체계적인 감염관리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내용은 △감염 예방관리 기본원칙 △손소염도 측정기 및 손씻기 뷰박스를 활용한 올바른 손씻기 체험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결핵 예방 △CRP 감염관리 등이다.

오진규 원장(사진)은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오진규 원장



김미림 미래클인에듀 원장,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

남원시는 운봉읍 용산리에 출신인 김미림 미래클인에듀 원장이 2일 오후 남원시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스피치 취업 면접, 고객 응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컨설팅 강사로 활동하고 그림 그리기는 시인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원장은 “전국을 오가며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도 늘 가슴 속엔 고향 남원에 대한 그리움과 설렘이 존재했다며, 남원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 기부금을 활용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최경식 시장은 “고향을 잊지 않고 가부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금은 청소년 인재양성 사업에 활용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주천면, 봄맞이 '도란도란 염색방' 등 진행

남원시 주천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남·여 의용소방대원, 맞춤형복지팀이 협력, 봄맞이 '도란도란 염색방'과 '우리동네 효자손'을 진행했다.

여성 의용소방대에서는 염색을, 남성 의용소방대에서는 취약계층에 고효를 열이다(LEO) 등 교체, 노후 전기선 정리, 고장이 난 문 경첩 수리 등으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결해 드렸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면민들에게 매우 호응이 높아 2024년 한 해 동안 '도란도란 염색방' 사업을 통해 17개 마을 104명이, '우리동네 효자손' 사업을 통해 15개 마을 24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또한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안내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주력했다.

노환순 주천면장은 매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남·여 의용소방대 등 봉사단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폭넓은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교대-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협약 체결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준)는 지난 3월 31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협력 및 대학과 지역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협력뿐만 아니라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및 관련 교육 사업 운영을 중심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고 향후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모은다.

박병준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우수한 교육·연구 역량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농협 연250만명 영농인력 공급 목표...총력 지원

농협, 2025년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 개최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리고, 범국민적인 농촌일손돕기 참여 확산을 위해 2025년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을 2일 김제시 벽골제공원에서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범농협 임직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 국회의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 농가주부모임 및 고향주부모임 회원, 전북대학교 학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촌일손돕기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뜻을 모았다.

이날 농협중앙회는 김제 지역 농업인을 위해 100여대의 비료 살포기 등 영농물품을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은 농가를 찾아 하우스 감자 수확, 평공 심기 등 영농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전개했다.

강호동 회장은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농촌일손돕기의 범국민적 참여를 확산하고자 2025년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을 개최하게 되었다”며 “농협은 인건비·영농자재비 상승 및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2025년 농촌인력증가를 통해 250만 명의 영농인력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도시농협을 통한 농작업 참여자 모집으로 농촌인력증가센터 영농인력 풀을 확대하고, 법무부 보라미 봉사단 영농인력 활용사업 추진, 영농인력지원 데이터분석 시스템 운영으로 인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오만호기자

정읍 임산물체험단지, 봄꽃과 함께하는 향기로운 힐링

정읍 임산물체험단지의 향기온실이 형형색색 봄꽃으로 채워지며 시민과 관광객에게 따뜻한 힐링 공간으로 다가가고 있다.

정읍시는 2일 봄을 맞아 임산물체험단지 내 향기온실에 8종의 봄꽃을 새롭게 식재하고 일반에 개방했다. 식재된 꽃은 거베라, 가자니아, 석죽, 애니사, 루피너스 등으로 봄의 정취를 가득 담고 있다.

기존에 식재해 있던 금복서, 은복서, 로즈마리 등 향기로운 식물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향기온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은은한 향이 방문객을 감싼다.

또한 체험단지 내 카페 시설인 ‘차향차향’에서는 임산물로 만든 차와 음료를 제공해 향기로운 꽃길 산책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매추차, 한방차, 복분자 요거트스무디, 정읍의품 빵 등 정읍만의 특색이 담긴 메뉴가 인기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향기온실 관람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향기온실을 찾은 한 관광객은 “평소에 보기 힘든 봄꽃을 가까이서 보고 향기를 맡으니 봄이 온 게 실감 난다”며 “아



이와 함께 음료도 마시고 온실을 걸으며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안용은 시설운영과장은 “시민과 관광객의 심신 회복을 위해 향기온실을 봄꽃으로 꾸몄다”며 “일상에 지친 분들이 이곳에서 재충전하고 즐거움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무주군가족센터, 건강한 가정조성 부모교육 개강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가 최근 건강한 가정조성 부모교육 ‘아빠 놀러가자!’를 개강했다.

건강한 가정조성 부모교육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아버지와 자녀를 대상으로 아버지 역할 교육 및 자녀와의 관계 증진 체험을 통해 자녀 양육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녀의 균형 잡힌 성장 도모 및 주 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총 4회기 진행된다.

1회기 프로그램은 아버지 자녀 소통 교육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성격 검사 작성 후 아버지와 자녀의 차이점 이야기하기, 가족 간의 건강한 소통 방법 이야기하기, 소통 빙고를 이용한 주말 계획 작성 및 행복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버지와 자녀의 소통사약문 선서하기를 통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가족센터는 앞으로 남은 3회기 동안 가족 케이크



남원 산동면 지사협, 스프레이형 소화기 지급

남원시 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월부터 관내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10가구를 대상으로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동면은 이번 대형 산불 사태와 함께 관내에서 지속되는 주택 화재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에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화기를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내 인구 특성상 노인 계층이 많아 기존 분말식 소화기의 무게와 조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화재 초기 대응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지급하고 사용법, 화재 시 대피요령 및 신고 방법 등을 적극 교육하면서 화재 피해 예방과 최소화에 여러 방면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만들기, 태권도원 패기치 체험, 아버지와 자녀의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NH농협, 정읍시에 교육발전기금 5000만원 기탁

NH농협 정읍시지부가 정읍시 교육환경 개선과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교육발전기금 50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지난 1일 정읍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순기 NH농협 정읍시지부장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전북총괄본부 이정환 본부장, NH농협 전북본부 김성훈 본부장 등 농협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기탁금은 시가 추진하는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겨 내 농촌유학 협력 초등학교에 지원될 예정이다.

김순기 지부장은 “정읍의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한 기금 기탁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전북대 보직교수들, 경남 산불 피해 지원 동참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이 최근 경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에 동참했다.

2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성금 마련은 양오봉 총장과 보직교수진이 중심이 돼 추진된 것으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이에 총장과 교수진은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총 320만원의 성금을 마련, 이를 조속히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힘을 보낼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을 드리고자 전북대 보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피해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하루빨리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농협, 제2기 여성대학 개강식 개최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달 28일 남원농협 고죽통합사설 2층 대회의실에서 여성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남원농협 여성대학은 지난 1988년도 처음 문을 연 주부대학에서 유래되어 지난해 여성대학의 첫 문을 열고 이어 2번째 문을 열었으며,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역할 수행과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성대학에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여성 100명이 입학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총 13주 과정으로, 여성 리더십, 건강·가정 관리 및 농협사업의 이해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열린다. 또 고향 주부 모임 및 지역 사회활동과 연계되는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사회복지관, 웰다잉 특강 진행

남원사회복지관(관장 강정아)에서는 2일, 남원의료원 지하 1층 강당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는 주제로 웰다잉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웰다잉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역발상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흐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날 강연에서는 한신대학교 손주완 교수가 웰다잉이란 무엇인가부터 노년기에 나타나는 특성,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로컬푸드 소비촉진 식생활교육 본격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시민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바른 먹거리 인식 확산을 위한 2025년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을 오는 6월 24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주 1~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회당 20명 내외의 소규모 실습 중심 교육으로,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별관 1층 조리실에서 진행되며 김제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로컬푸드에 대한 이론 강의와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실습으로 사용되는 식재료는 김제 지역뿐 아니라 국내 유통되는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폭넓게 활용, 교육 주제도 △김가루 김장아찌, △매운아찌 비빔냉면, △메타카로 된 수프 △자반 나물 샐러드, △양배추 치즈말이 등 일상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요리들로 꾸려진다.

교육 참여자들은 개인 앞치마와 포장 용기를 지참해 실습에 참여하고, 완성한 요리는 직접 포장해 가져갈 수 있어 가정에서도 다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시민들은 로컬푸드의 개념과 식재료에 대한 이해는 물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식생활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과 시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김제=곽태 기자